

지난 7월 22일과 23일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Accra)에서 열대우림동맹(Tropical Forest Alliance: TFA) 2020의 「팜유 이니셔티브 가나 워크숍(Palm Oil Initiative Ghana Country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팜유 산업이 가나의 차세대 황금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팜유, 가나의 주요 수출 품목

가나는 영국 식민지 중 가장 먼저 팜유 농장이 설립되었으며 1820년에 처음으로 팜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1850년대 후반 팜유 재배 플랜테이션이 형성되면서 팜유는 재배 농작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팜유는 가나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77년부터 GOPDC (Ghana Oil Palm Development Company Limited), TOPP (Twifo Oil Palm Plantation Limited), BOPP (Benso Oil Palm Plantation Limited) 등 팜 재배 기업들이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트 재배를 가속함에 따라, 가나의 팜유 생산지는 1970년 1만 8,000헥타르에서 1990년 10만 3,000헥타르로 확대되었다.

팜유, 황금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팜유는 식료품 및 화장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면서 다른 식용 기름보다 생산량이 많다.

최근에는 많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이 아프리카에 생산 시설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ilever는 현재 필요한 팜유를 동남아시아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아프리카에 생산 시설이 생긴다면 그 공급처는 아프리카로 옮겨갈 전망이다. 또한, 팜유가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면서 팜유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4년 가나의 팜유 생산량은 13만 5,000톤을 기록하였으며,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콰우 스피오-가르브라(Ekwow Spio-Garbrah) 가나 무역·산업부 장관은, 가나의 팜유 산업을 「잠자는 거인」에 비유하며, “팜유 산업은 가나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나, 팜유 공급량 부족 전망

팜유는 가나를 비롯해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 기름이다. 가나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 또한 높아 팜유를 대량 수입도 하고 있다.

「팜유 이니셔티브 가나 워크숍」에서 유니레버의 가브리엘 오포쿠-아사레(Gabriel Opoku-Asare) 가나 법인 대외협력국 국장은 “팜유가 가나의 황금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팜유를 생산하는 동시에 팜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현재 가나의 팜유 공급량은 5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10만 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국장은 덧붙였다.

지난 4월 가나에서는 가나팜오일발전협회(Oil Palm Development Association of Ghana)의 발족을 알리며 팜유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플랜테이션 및 생산량 증가 계획을 알렸다.

팜유 생산국이자 동시에 수입국인 가나가 향후 팜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나 팜유 산업, 차세대 황금산업으로 부상

2015년 8월 24일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7월 28일, 팜유, 가나의 차세대 황금산업 될 가능성

[참고자료]

Ministry of Food & Agriculture Republic of Ghana, Daily Guide Ghana, Oil palm in Africa, FAO, GhanaWeb, Proforest, Graphic Online 등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